

“평화·나눔 통해 인류 행복 기원”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부산대회 성료 각국대표 500여명 참석... ‘황금유대’ 다짐 세계평화기원법회, 국제학술강연 등 열려

“한중일 불자들은 힘을 모아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을 기원합니다.”

10월 25일 부산 범어사. 산사의 고요함을 깨는 명종소리가 5번 울려 퍼진 후 500여 불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삼귀의례를 올리는 모습은 장관을 이뤘다.

이날의 행사는 한중일 불교의 ‘황금유대’를 위해 열린 제8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 부산대회의 둘째 날 일정한 세계평화기원법회, 법회에 참석한 불자들은 평화기원문과 공동발원문을 채택, 각국의 전통방식으로 예불을 봉행한 후 평화기원문과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직무대행

현고 스님은 평화기원문에서 “평등심과 나눔을 통해 인종차별과 사상의 차이를 극복하고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겸 비서장 쑤웨이청(學城) 스님은 “불교도의 이타적 소양을 널리 펼쳐서 다함께 인류의 내일을 창조해나가자”고 말했다. 일중한 국제불교교류협의회 이사장 고바야시 류소우(小林隆彰) 스님도 “3국 불교도의 화합은 세계평화를 희구하는 인류 공국의 이상이다”고 강조했다.

제8차 한중일불교우호교류 부산대회’는 10월 24-26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부산 범어사 등지에서 열렸다. 첫째 날에는 한중일 불교우호교



10월 25일 부산 범어사에서 열린 세계평화기원법회에서 한중일 불교대표단은 “불자의 힘으로 분쟁 해결에 앞장서자”고 다짐했다.

류위원회 본회의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초청 환영만찬 등이 열렸다. 한중일 불교우호교류위원회 본회의에서는 제9차 일본대회와 제5차 불교수행체현행사의 일정 등을 내년 3월 30-31일로 예정된 예비회의에서 논의키로 결정했다.

둘째 날 열린 국제학술강연회에서는 동국대 정각원장 진철, 중국불

교협회 부회장 성취 스님 등이 ‘인류사회의 발전과 삼국불교의 역할’을 주제로 기조발제하고, 태고종 사회부장 법현, 천태종 교육부장 용암, 진각종 문화사회국장 향덕 정사를 비롯한 8명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세계 날에는 통도사.운문사 등 성지순례가 이어졌다.

글·사진/부산=강유신 기자

“10·27 법난 특별법 제정 필요”

국회 공청회 참가자들 ‘진상규명’ 촉구

우리나라 대표적 종교 탄압이자 핵불사건인 10·27법난의 진상규명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서 이뤄져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국대 법대 연기영 교수는 10월 27일 국회 의원식당에서 열린 ‘10·27법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청회’에서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연 교수는 “법난은 특정 종교 단체에 대한 인권유린행위이며, 종교탄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 교수는 이어 특별법은 △ 불교계의 명예를 회복하고 피해자들의 자유와 행복, 화해를 확보하는 데 목적을 뒀다 하며 △ 법난 조사와 관련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명령을 받은 기관은 정보 공개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등의 법률안을 제시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증언자로 나선 MBC ‘이제는 말할 수 있다-10·27법난의 진실’ 채창규 PD도 “당시 가해자들이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10·27법난의 정치사회적 배경과 국가폭력의 정당성 문제’를 발표한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 역시 “법난은 정당하지 못한 군부세력이 국보위라는 폭력적 국가기구를 통해 불교계 정화란 미명하에 자행된 국가폭력”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 이해동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12월 말이나 내년 1월초부터 법난에 대한 진상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며 “법난 진상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철주 기자

진각종 내년예산 160억

‘진각60, 비전27’ 사업에 집중

진각종의 2006년도 예산이 16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진산는 10월 20일 총인원 내 무진법전전에서 제 345회 정기총회의를 열어 중앙총무기관 각 부의 내년도 예산안 160억원을 승인했다.

진각종의 내년도 예산배정의 주안점은 창종 60주년 기념사업 준비비를 포함한 소리 통일화작업 등 ‘진각60, 비전27’ 사업구현을 위한 각종 불사부문에 집중시켰다는 것.

유지재단 이사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한 이날 종의회는 또 12월 5일자로 유지재단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진성 정사와 이행정 전수의 유임을 결의하고, 임기만료와 더불어 정년을 맞이한 현봉 정사의 후임 이사로 경정 정사를 선출했다. 이와 더불어 종의회는 내년 3월 16일과 4월 21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학교법인 회당학원 감사 해인, 증광 정사를 재추천키로 결의했다. 김원우 기자

백진순·박재현·김귀주

연구기금 수여 대상자로

소장불교학자 지원을 위해 지난해 설립된 ‘한국불교학연구기금(상임대표 백상)’은 제2회 연구기금 수여 대상자로 백진순·박재현 박사과 김귀주씨 등 3인을 선정하고, 27일 수여식을 봉행했다.

백진순씨는 ‘성유식론의 가설에 대한 연구: 은유적 표현의 근거에 대한 고찰’(연세대 철학과 박사논문)으로, 박재현씨는 ‘한국불교의 간화선 전통과 정통성 형성에 관한 연구’(서울대 철학과 박사논문)로 각각 ‘불교관련 박사논문 지원’ 분야에 선정됐다. 김귀주씨(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과정)는 균여의 <일승법제도원통기>를 번역한 공을 인정 받았다. 백진순 기자

2006 e-불교정보 발간 예정

불교방송 문화사업단

불교방송 문화사업단(단장 구기범)은 불교정보의 현대적 구축과 서비스의 대중화를 위해 ‘2006 e-불교정보’를 발간한다. 기존의 불교전화번호부를 개정·증보한 ‘2006 e-불교정보’는 단체명과 주소, 전화번호부외에 우편번호와 홈페이지 주소까지 추가했다.

한편 불교방송 문화사업단은 11월 3일 오후 2시 분사 16층에서 출판계약 및 출판 설명회를 실시한다. (02)705-5301 노병철 기자

“간화선 통한 수행·종학체제 정비 시급”

조계종 정체성 확립 위한 워크숍

재가자 포용한 접근 전략 제안

조계종의 정체성은 어떻게 확립해나갈까? 조계종 포교원이 이를 주제로 10월 27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포교연구위원회 워크숍을 열었다. 조계종이 종단 정체성 확립을 놓고 공식적인 논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조계종 총무국장 만초 스님은 “간화선을 중심으로 수행체계, 종학체제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으며 수석재 포교국장 지오 스님과 포교원 신도국장 원철 스님 역시 이에 동의했다.

“조계종은 선불교인 동시에 통불교적인 성격도 지니고 있어 이것이 정체성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짚은 지오 스님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종단 차원에서 조계종 수행을 정리하고 간화선 체계를 세울 것 △재가신도들이 지속적으로 점검·지도 받을 수 있

는 수행체계를 세울 것 △선행을 넘어 사회화원을 위한 자원봉사 통로를 종단이 열어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일부 참석자는 “선도 정체성을 간화선으로만 제한할 경우 대다수의 불자가 종도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생긴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승기 사찰경영연구소 부소장은 “조계종 선도는 크게 사찰법회에 정격적으로 참여하는 20%의 핵심층과 신행활동에 무관심한 80%의 잠재적 불자층으로 양분돼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개선전략을 수립하는 2차원적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밖에도 김용철 중앙승가대 포교사회학과 교수, 이상근 중앙선도회 총무부장, 정우식 조계사 청년회장은 △종단과 승려정체성의 우선적 확립 △80%에 이르는 잠재적 불자

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다양한 문화적 접근전략 수립 △입교에서부터 재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신도교육 및 전략적 접근방안 재수립 △조계종 선도의 소속감을 높이기 위한 1수1일1행(1修1入1行, 하나의 수행을 하고 한 개의 재직사찰을 가지며 하나의 신행을 꾸준히 하는 것) 운동 실천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이은비 기자

“양성평등 직장 만들기”

조계종은 10월 25-26일 교역직 및 일반직 종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한 직장문화 만들기’ 교육을 실시했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지만 이번에는 의무적으로 전 직원이 교육을 받도록 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강사로 나선 국무총리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종합지원센터 김영란 소장은 △양성평등의 의미 △직장내 성희롱 규정 수위 △성희롱 예방 및 대처법 등에 대해 강 의했다. 이은비 기자

범어사, 선문화 체험타운 조성

2010년까지 명상Zone

자유 스님 강의 프로그램도

‘선찰대본산’ 범어사가 명실상부한 선(禪) 중심지로 거듭난다.

부산 범어사(주지 대성)는 10월 26일 ‘세계선문화체험타운 기획단’(단장 윤석진) 현판식을 갖고 선문화체험타운 건설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2010년 완공되는 선문화체험타운에는 7만여평의 부지에 명상체현 존(Zone)과 심신수련 존, 전통문화 체

‘불교 환경의제 21’ 확정

내년 상반기 선포식 예정

‘불교환경활동의 지침서’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불교환경의제21’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정녕)는 10월 27일 역사문화기념관 4층 회의실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지난 2003년부터 공식적으로 추진해온 ‘불교환경의제21’을 최종 확정했

다. 이에 따라 “현안대응에 급급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불교환경활동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불교환경의제21은 △불교환경 기본의제 △환경친화적인 생활과 수행 △생태사찰 만들기 △수행환경 지키기 △사찰과 지역공동체 등의 5개 분야와 31개 행동목표, 종단 179개, 사찰 133개, 사부대중 110개 등

범어사 주지 대성 스님은 “세계선 문화체험타운은 불교 정신문화를 이끌어 갈 인재양성의 교두보가 될 것”이라며 “나아가 한국의 정신문화와 세계인의 정신문화를 주도하는 중심지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판식에서 범어사 조실 지유 스님은 범어를 통해 “화엄경, 법화경 등 수 많은 경들이 따로 있는 것처럼 알고 있으나 그 모두는 부처님의 마음”이라며 “깨달음을 얻기 위해 밖에서 헤매지 말고 그 마음을 버리는 것으로 깨달음을 얻으라”고 말했다.

유철주 기자 yjc@buddhapia.com

의 행동계획으로 구성돼 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정녕 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불교환경의제21을 실질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조만간 종단과 환경단체 등으로 ‘불교환경의제21 실천협의회’를 구성할 방침”이라며 “내년 상반기 중에 불교환경의제21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10월 27일 현재 조계사를 제외한 전국 23개 교구본사 중 14개 본사에 환경위원회가 구성됐다고 밝혔다. 유철주 기자

"치솟는 난방비용 이제 마음껏 쓰세요"

난방비의 획기적인 절감 및 균일난방 효과로 현재보다 따뜻하게 쓰면서도 난방비는

최저 20% 최고 50%까지 절감됩니다. (최저 15% 법적보장)

저렴하고 간단한 설치로 한여름처럼 보낼 수 있습니다.

EPS패널을 설치하계되면

- 내 방은 내 마음대로 원하는 난방온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침실 22℃, 거실 18℃, 공부방 20℃, 할머니방 26℃)
- 시공과 운전조작이 간편함
- 불필요한 보일러의 가동시간을 줄여 세대 내 모든 공간을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를 20~50%까지 절감시켜줍니다
- 아파트의 가격상승 및 선호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EPS패널은 이런곳에 사용 됩니다.

-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보조난로, 전기장판을 사용하면서도 쾌적한 난방효과가 없는 집(화재요인감소)
- 더우니 없는 난방비에 비해 추운집(안방은 덥고 할머니 방은 추운 곳)
- 방마다 온도조절을 따로 하거나 별도의 난방시공을 해야 하는 집
- 심야전기용량이 부족한 집
- 한여름처럼 난방을 하면서 난방비 다이어트를 하고 싶은 집

※ 전국사찰, 개별보일러, 심야전기보일러 등

(주) 이플러스세이버 TEL. (02)470-0400

동국대학교 불교대학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제5차 공청회

우리 위원회는 불교대학발전에 대한 사부대중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일련의 공청회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공청회는 “불교대학과 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을 주제로 개최되며, 그동안의 공청회를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주 제 : 불교대학·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일 시 : 2005년 11월 11일(금) 오후 1시

■장 소 :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

- 사회: 학담 스님(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
- 발제 및 논평(오후 1시 ~ 3시 30분)
 - . 발 제 : 불교대학·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 조용길 교수(동국대 불교대학 학장 겸 대학원장)
 - 제1논평 : 불교대학·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 우제선 교수(동국대 불교학과) / 김호성 교수(동국대 인도철학과) / 중호 스님(동국대 선학과 교수)
 - 제2논평 : 불교대학·대학원의 편제 및 운영에 관한 개선방안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대학원에 대한 기대와 요구) / 장익 교수(위덕대 불교문화학부)
- 종합토론(오후 3시40분 ~ 5시)
 - 지정토론: 동국대 불교학과·인도철학과·선학과강사
 - 방청토론: 참석대중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불교대학발전위원회

문의 : 02)2260-3768